

트럼프 · 김정은 노벨평화상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민의 6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4일 성인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응답자의 66%는 '잘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잘못됐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11%였으며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22%였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2018. 6. 15자 <국민 66% "북미 정상회담, 잘됐다" 긍정평가 [한국갤럽] 참조.



문재인 대통령도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사진 세계일보에서 가져옴)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하여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적어도 전쟁, 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공포를 없애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vanguardngr.com/에서는 문재인도 노벨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공은 사람에게 돌리는 위대한 이긴자 조희성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을 없앴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진실로 오산이다. 조희성 이긴자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첫 번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멸망의 위협이 되는 공산주의를 없애는 약속을 실현하셨다. 고르바초프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정치지도자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먼저 고르바초프가 이긴자 조희성님을 닮았고, 나이 또한 똑같은 신미생 양파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가능성 50%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메트로(METRO) 신문 6월 12일자 기사에서는 올 12월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반이라고 예측했다(<https://metro.co.uk/2018/06/12/>). 그 기사가 따르면 자기 홀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가능성도 반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다른 신문(<https://www.>

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善法(선법)이면 好運(호운)이요 不善法(불법)이면 惡運(악운)시라. 末世出入攝政君(말세출입섭정군)들 堂堂正正(당당정정)일지 마소. 阿差(아차)한번 失法(실법)하면 自身滅亡敗家(자신멸망패가)로서 全世大亂飛相火(전세대란비상화)로 天下人民滅亡(천하인민멸망)일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내 왕을 섭정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섭정군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섭정군이 失法(실법)하면 섭정군 자신은 말할 것 없고 천하만민들이 다 멸망한다고 했다. 하늘의 뜻을 잘 아는 섭정군이 절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말씀에서 시사하듯이 세계공산주의를 무너뜨릴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섭정군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공사를 행할 때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그 지도자가 당신의 뜻을 잘 따르는 경우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를 폐하거나 멸하신다.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한 사울 왕의 경우가 그렇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사무엘상 15:23)." 그리고 15장 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왕을 위하여 슬퍼하였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다. 박태선 장로님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섭정군으로서 통치를 잘하다가 말년에 유신 정권을 세우면서 무너졌다. 유신정권을 세웠을 때 박태선 장로님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중단 하겠다고 선포하신 후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비운의 삶을 마감했다.

고르바초프 노벨상도 이긴자 작품

끝으로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고르바초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조희성 이긴자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고르바는 1990년 10월 15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뷰(2006. 6.2)에서 공산주의를 없앤 것은 비통한 실책이라고 후회하였다. 이를 볼 때 고르바는 자신의 의지로 공산주의를 없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조희성 이긴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점이다.*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 노벨 평화상 부문에서 세계 81번째로 수상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비화 투표 전날 당선축하 용포 보내



김대중 선거사무소를 우리식구가 방문했는데 이슬성신이 내렸다 이젠 또한 조희성 이긴자께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운 증거다

었다. 그리고 용포에 적힌 글을 보더니 "아니 대통령선거가 내일인데, 아직 선거도 안했는데 대통령 당선을 경축드린다니?" 정색을 하면서 의아해 한다.

그래서 "저희 조희성 총재님께서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이 한국에 내신 정도령님이신데 이 백성이 그분을 못 알아보고 탄압과 핍박을 가하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김영삼대통령이 정도령님 탄압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오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더니 이희호 여사는 좀 황당해 하면서도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는 말에 기분이 매우 좋아했

다. 그러면서 백지에게 "용포 1점 접수함. 1997.12.17. 이희호."라고 쓴 친필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하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드리면 되느냐?"라고 묻는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신이 되시면 제일 먼저 옥중에 계신 조희성님을 찾아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아휴 그걸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난처해 한다. 그래서 "마음만 잡으시면 왜 안 되겠어요. 김대중 선생님이 틀림없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지금은 믿지 못하시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정도령님을 인정하시어 꼭 만

나 뵙고 싶어지실 것입니다."라고 말 을 했더니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김대중 후보 조희성 이긴자의 당선축하 말씀 듣고 감격해 했다

그리고 있을 때 2층에서 김대중 후보가 내려왔다. 그래서 김상옥 회장이 김대중 후보에게 인사를 했더니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했다. 김회장과 김대중 후보는 손을 꼭 잡고 한 동안 서로 놓지를 않았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한 상태에서 김상옥 회장은 "조희성 총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옥중에 계시면서 금년 1월부터 이번엔 대통령은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내일이지만 이미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가서 당선을 경축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김대중 후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꼭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하면서 악수한 손을 놓지를 않았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한 이긴자 조희성님의 뜻대로 남북관계는 급진전을 보았고, 그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은 바로 조희성 이긴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자께서는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일은 이긴자가 하시고 공은 사람이 받게 하는 위대한 희생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6)
“끝까지 견뎌야 한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눈에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입을 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고로 그 누구도 탄복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견디는 힘이 없이는 물 한 모금 안 먹고, 잠 한숨 안 자면서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씩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땀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자고 싶으면 자지 않고, 일을 하기 싫으

면 더 계속해서 일을 하는 생활도 견디는 힘이 있었던 고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렇다고 금식기도를 해서 안 된다. 금식기도는 마귀에게 비밀이 노출될 무기이므로 여러분들은 세 끼 밥을 먹고 잠도 푹 자야 한다. 그러나 일을 하기 싫을 때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반대생활은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극기복례(克己復禮) 구세주 正道승 시대

철부지 언론 · 정치 · 지식인들의 철없는 「교만 & 걱정」

공자의 대표적 사상은 인(仁)이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인 때문에 살면서 인을 모른 채 외면하고 산다고 탄식하며, 인을 좋아하기를 여색(女色) 좋아하듯 한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안연이 인을 묻자 왈(曰)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감에 인이 된다(克己復禮). 하루 동안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인을 행함은 자기를 말미암는 것이니,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非禮勿視), 듣지 말고(勿聽), 말하지 말고(勿言), 행동하지 말라(勿動)"고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와 학문 이를 명쾌하게 밝힌 정도령

에서 극기복례의 정도를 설하여 천지 만물을 인(仁)하게 개벽시키는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했다. 그의 경천동지할 깨달음을 통해서 6천 년 만에 밝혀진 극기의 이유와 복례의 방법은 참으로 명쾌 · 통쾌하고, 그 결과는 유쾌 · 상쾌하다.

인간들이 그토록 애지중지 보존해 온 자존심이 마귀영아리니! "나" 라는 주체의식이 6천 년 전 에덴동산을 죽음과 분쟁의 실낙원으로 타락시킨 선악과요 마귀신이다. 선악과 사건이란, 아담과 헤와가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마귀 신에게 강제로 점령 당함으로 인 간으로 전락 "나" 라는 주체의식의 포로가 되어 양심수로 간히 게 된 치욕의 사건이다."

으로 더불어 행복함을 누리는 건전한 마음'의 조화였다. 그러나 인류는 평생소원인 이러한 영생복락의 낙원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극기복례의 정상을 정복한 선각자의 가르침이 없었기에 그 원인을 밝혀 '궁극의 예'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존재할 수 없었다. 하여, 마음은 간절하되 반신반의의 어설플 지혜와 능력으로 급조한 그들만의 이념과 교리를 진실과 진리로 맹신, 집단이익에 목숨 걸고 선전선동을 일삼는 위선의 정치 · 종교 · 언론투사들만 난무하는 헬(Hell)조선, 지옥의 지구촌으로 만들었다. 지구촌이 '누아르[범죄 · 폭력]영화 「영웅본색」의 주무대가 되어버렸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고 했던가! 드디어 홍익인간 내내천 철부지 언론 · 정치 · 지식인들! 극기승자 정도령의 양심선언에 귀 기울일지이다! *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나 참스승을 만나 옳고 바른 깨달음으로 극기복례를 이루어 영생복락을 누리려면 한번의 인생으로 충분하다. 구세주 정도령시대에 철없는 교만과 걱정거리로 선량한 백성들을 불안하게 선포하는 철부지 언론 · 정치 · 지식인들! 극기승자 정도령의 양심선언에 귀 기울일지이다! *

도서출판 해인

해인출판사 신간 『후회없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이긴자를 만난 15명의 행복 체험과 이긴자의 권능과 권세 체험 ebook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교보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정가 15000원